

교회 목표

1. 천국일꾼을 키우자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 충현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윤명식
편집국장: 손경수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

전도 운동 확산 본격 가동

개인 전도, 잃은 양 찾기 지속적 전개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헌신 예배도

우리 교회의 배가운동이 본격 가동되었다.

이미 지난 3월 29일 태신자 카드 작성을 시발로 오늘(4월 5일) 저녁 찬양예배는 배가운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며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가운동 헌신예배로 드리게 된다.

그뿐 아니라 9개 항목의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진행

키로 했다. 개인 전도를 하는 일로부터 잃은 양 찾기, 구역장 주간 교육, 새로운 교구를 신설하여 전도로 등록된 교인들 특별 관리, 그리고 청장년 집회를 통한 말씀과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14:23)는 주제 성구와 찬송가 255장을 주제 찬송으로 한 이번 배가운동

은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는 교회 목표에 의거하여 민족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

세부적인 분과별 활동 및 전도 전략은 앞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구역일꾼
특별 교육키로

교구위원회는 구역일꾼의 자질 향상과 교회 배가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하여 구역일꾼들을 특별 훈련키로 하였다.

이 교육은 4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실시되며, 강사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한편 금요일 구역 예배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그 인도자를 주일 교구 모임 시간에 각 교구 지도 목사가 담당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오늘 제6회 교구찬양대회 개최
찬양으로 드리는 산 제사되길

오후 3시 20분 이후 모든 집회 일시 중지

교구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가 주관하는 제6회 교구찬양대회가 오늘(4월 5일) 오후 3시 20분 본당에서 개최된다.

한 교구당 100명 이상의 인원으로 찬양대를 구성하여 개최될 이 찬양대회는 지정곡은 없고 자유곡으로만 편곡 없이 3절을 부르며 된다. 심사기준에 의하면 참여도 50점, 태도 50점, 음악성 100점의 총점 200점 만점으로

우열을 가리게 되는데, 특히 이날 행사를 위하여 오후 3시 20분 이후 모든 부서는 집회를 일시 중지하고 찬양대회에 참석토록 권장했다.

합창과 중창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합창 부문에는 17개 전 교구가 참가하고, 중창 부문에는 7개 교구가 참가하게 된다.

충현프리즘

◎...지난 3월 31일 저녁에 있었던 제7대 집사 정렬 및 제35대 권사 취임 예배는 아주 겸손하고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동 여배의 홍보매체는 주보와 주간충현 이외엔 일체 대외적인 초청장이나 교계 신문 광고도 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화제로 오는 성도들도 개인적 친분 이외의 축하기념품도 사양하고, 접수대

도 만들지 않았다. 정렬과 취임하는 당사자들 가족과 안수위원, 당회원, 그리고 성도들의 조촐한 모임이었다.

근경 절약을 부르짖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런 행사로부터 술선 수백하여 주님의 교회로써 적당한 모양새로 교회 예식을 치렀다는 것은 새로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교구별 인원 동원도 하지 않았고, 정성식 인간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도 이 날의 예식은 간결하고 은혜롭고, 모두가 공감하는 축하의 자리가 되었다.

는 데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싶다.

지난 세월이었지만 땀과 인연 보고, 의식(儀式)을 중심으로 한 회화 전환한 예식이 사라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된다.

◎...어떤 세월에 들은 시가운데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것이 있다.

반쯤이 소생하고, 잠자던 개구리와 뱀이 기지개를 펴며 지상으로 올라오고, 산과 들엔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고 있는데, 외로운 달이라고 표현했을까?

하기야 역사를 훑어 보면 민주화를 외치다가 피를 흘리고 죽어간 많은 학생들을 생각할 때 그럴만한 명분이 새기도 한다.

때론 이따 때가 되면 대학 캠퍼스가 들쭉거리고 젊은이들의 함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4월의 부활절을 꼭 기억해야 한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팔기암에,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데 절대 신앙이 있다는 것을.

카메라 쏠점



▲지난 3월 31일 제7대 집사 정립 및 제35대 권사 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4월 2일 첫 훈련을 시작한 청지기 훈련은 3백여명의 성도가 참가하여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주엔 4, 5, 6 교구가 청지기훈련

지난 4월 2일과 3일 충현기도원에서 첫 훈련을 실시한 청지기 훈련이 많은 성도들이 참여로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이번 주에는 4, 5, 6 교구가 9일과 10일에 실시되는 2차 훈련

에 참가하게 된다.

앞으로 다섯 차례 남은 이 훈련에 모든 충현의 성도들이 적극 참가하기를 주최측은 바라고 있다.

북한선교 통일훈련원 지원키로

우리 교회는 김장원 원로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서단별원 북한선교 통일훈련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원키로 하였다.

본 법인은 77년 설립된 이래 84년까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활발히 활동하여 많은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로 활동이 적조하여, 우리 교회가 그 운영을 일임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본 법인을 정상화시키고 북한 선교를 적극 펴나가게 된다.

오늘 찬양예배 후
재직회 소집

우리 교회는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재직회를 소집하여 교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논의한다.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넉넉한 승리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엡6:10~24)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두 가지 일에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 싸움의 대상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우리들의 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1,1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계라는 말은 원문에 ‘배소도이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어의 ‘배소드’(방법)라는 말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적은 첫째는 마귀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원문에는 사탄이라고 나오고 한글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참소자, 던진자,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아내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선생과 제자 사이를 갈라놓고, 목사와 교인 사이를 갈라놓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 밑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면서 복수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계시고 그 밑에 천군과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어 제일 높은 왕은 사탄 패괴이고 그 아래는 귀신들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귀신들 사이에도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같은 여러 계급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정부처럼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려는 것에 악령들의 세계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들의 원수들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바결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승리의 비결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엡6:10, 11)

첫째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고자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우리들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싸우고자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시대에는 기독교인이라든가 큰 죄를 범한 죄수들에게 레슬링을 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려 누릴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하게 하였고, 살아남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석방시켰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검투사라 하여 칼이나 창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게 하여 상대방을 죽일 때까지 싸우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마귀와 싸울 때 어느 한 편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내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3.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6:13)

이 말씀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둘째는 서기 위하여, 즉 쓰러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4절 이하에는 전신갑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권대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엡6:14)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군인들의 허리띠에는 총이나 수류탄, 그리고 총탄도 매달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매어야 하는데,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성도들과 성도들을 연결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연결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 진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앙의 선조들은 적어도 정직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금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흉배는 금소인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귀와 싸울 때 영적 금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단순히 옳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의(롬5:1)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엡6:15)

셋째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알렉산더대왕이 불과 3만명의 군대로 백만명이 넘는 적들과 싸워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하기에 관한 가족신을 모든 병사들이 신도록 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적을 소멸

도 마귀와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나온 무기들은 모두 뒤를 보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들은 후퇴를 전제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신령한 능력

이제는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공급 받아야 하는 신령한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외에 중요한 것은 내적인 힘, 즉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소련에서는 20만명이 넘는 KGB 요원을 전세계에 밀파하였고, 미국에서는 수백개의 인공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정보부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필요하면 예수님께 연락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정보부장인 예수님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엡6:18, 19)

이 말씀을 보면 기도에는 보통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가 있는데, 성도들은 이 세 가지 기도를 모두 할 수 있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와 간구가 필요

하고”(엡6:16)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방패에는 손방패와 온몸 전신을 보호하는 몸방패가 있습니다. 불화살이 최강의 무기이던 시절에는 몸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냈습니다. 우리들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믿음의 방패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겹 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6:17)

다섯째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성령의 겹 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야 합니다. 앞의 다섯까지는 방어용 무기인데, 성령의 겹 끈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용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이고, 공격용 무기로서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합니다. 모든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욕심에 이끌리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남을 비난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 기도는 깨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으신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C.S. 루이스는 마귀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어린이나 노인이 아니고 바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악령의 세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다.

1. 사순절(LENT)의 유래

기독교에서는 여러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부활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듯이, 그리스도의 고난 없는 부활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부터,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을 뜻있게 맞이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보냈던 기간이 사순절의 효시라 말할 수 있다.

주후 1세기경부터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참된 의미와 뜻을 새기기 위해 교회는 새로운 성경적 계획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다. 바로 그것은 부활절 전에 40시간(주님께서 무덤에서 보내신 것으로 믿어지는 시간)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함께 모여 금식과 기도,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시간을 가졌다. 주후 60~70년경부터 초대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에 이어 니산달 17일 경, 밤을 새우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5:7)는 찬송을 불렀던 것이다. 이때를 지칭하여 파스카(Pascha)라고 하였다.

이때는 교회가 핍박을 심하게 받던 때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스런 파스카 기간에

● 중현논단 ●

사순절의 유래와 현대적 조명

김희수 목사(제13교구·중등2부 지도)



하며 신령한 영적 훈련을 받았다.

40시간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여 6일로 연장되었다. 그러다가 주후 3세기 중엽에는 36일로 되었다. 신앙 자유령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내려졌다. 그리하여 마음껏 자유롭게 금식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36일을 지정한 것은 1년 365일의 십일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731년경 살만 대제 시대에 이 36일간에 나흘이 첨가되어 40일간의 절기가 되었던 것이다.

40일을 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마4:2)과 시나산에서 행한 모세의 금식(출24:18),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가기 전에 행한 금식(왕상19:3)에 근거를 둔다. 이 모든 금식은 다 40일 기간 동안 행해진 것이다. 초기에는 이 금식이 엄격하게 실시되었으나, 13세기부터 약간의 가벼운 식사가 허용되었다. 그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의 첫 날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과 성 금요일에만 금식하도록 했다. 그러다가 18세기에는 비교적 사순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가, 19세기에 와서 다시 부활되어 실시했다. 그러나 과거처럼 40일 동안 금식하며 신앙 훈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보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오늘날 사순절은 고난 주간 정도로 그 뜻을 새기며 기도하며 보내는 추세이다.

2. 사순절 기간의 행사 내용

사순절 기간에는 세례를 위한 성찬, 그리고 입교, 금식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오락을 금하고, 연극, 소설을 읽는 것, 화려한 옷과 허영적인 행동을 금하였고, 예배의 적극적인 참가와 개인 기도회 힘쓰고 자선 사업에 협력을 하도록 권장했다.

사순절 첫 주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둘째 주는 사탄을 몰아내고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린다. 셋째 주는 빛의

아들과 어둠의 대립,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을 중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다. 넷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것으로 말씀을 삼는다. 다섯째 주일은 고난 주일(Passion Sunday)이다. 얼핏 생각하면 부활 주일 전 주일이 고난 주일 같으나 교회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날을 고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이미 자기의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것이라는 것에 기인하였고, 그날 나누는 성경 말씀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일과 허브리스의 주의 고난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 것이다. 여섯째 주일은 종려 주일(Palm Sunday)이라고도 한다. 이날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는 군중들에게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배우는 것이다.

다음은 사순절의 정상기라고 부르는 고난 주간이다(Passion Week 또는 Holy Week). 이 주간의

복음서 기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배우며 고난에 참여하는 데 힘을 둔다. 이 주간 많은 교회들은 특별 집회를 갖고 그 뜻을 기린다. 고난 주간에 다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절 행사가 시작된다.

3. 사순절의 현대적 조명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 세례 받은 자와 입교할 자들이 금식하며 영적인 훈련을 받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는 고난 주간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다른 주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고난주간보다 부활절에만 모든 관심을 모으는 것 같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교회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교회에서 집회를 가지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진정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 성도들은 사순절의 참된 의미와 뜻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사순절은 자기 부인과 금식의 기간, 즉 영적 훈련의 기간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사순절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와 구속적 의미를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계속)

장로칼럼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송기홍 장로
(초등3부 부장
제1교육위원장)

"쫄쫄 누구네 집 자식들이 저 모양이람." 오늘날 거리에서 제멋대로 방종하는 비행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살을 찌푸린다. 때로는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세상이 말세라고 푸념하기도 한다.

저들을 탓하기 전에 기성 세대요 부모 입장인 우리를 먼저 살펴보자. 집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으며 어떤 것을 보여주었는가?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를 통하여 말과 생활을 배우고 기성 세대의 행동을 모방한다. 따라서 저들이 비뚤어져 가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무책임함과, 사회 속에서는 기성세대들의 무절제한 사치와 음란과 퇴폐풍조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나 통탄할 일인 것이다.

무디어지고 있는 성수주일 개념도 각성해보자. 주일 인데도 신앙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 없이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제과점이나 슈퍼마켓을 유유히 출입하

는 부모들의 수가 적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면 될 일을 왜 저렇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이면 먼 거리라도 버스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 또 1962년 6월 10일 당시 군사혁명정부가 갑자기 화폐개혁을 단행하여서, 당일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구의 돈이 얼마가 되든지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중현교회는 많은 액수의 현금이 휴지뭉치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데도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화폐 교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일에 단 일원도 손해보지 않고 교환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셨다. 당시에 당회장이신 김창인 목사님의 보수신앙과 순교자적인 외침에 따라준 성도들의 믿음을 오늘에 되새기고 본받을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들 자녀에게 들려주고 가르쳐야 하겠다.

옛말에 예쁜 자식에게는 매를 많이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먹을 것이나 많이 주라고 하였는데, 요즘은 젊은 부모들 중에는 자기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매를 때리면 아이의 기가 죽는다고 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물을 먹여야 성장발육이 잘되어 건강하다고 해서 과잉보호, 과잉섭취를 시킨 결과, 비뚤어지고 이상 비만 증에 걸린 기현상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는 단 하루도 결석하면 안되고 시험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아야 되지만, 교회는 가끔 빠질 수도 있고 성경은 매일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 자녀를 세상적으로 길사람은 잘 키웠다고 할지

몰라도, 속사람인 인격과 그 영혼을 윤택하게 키워내기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생활 속에서 본을 보여주어야 하겠다.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재산은 젊었을 때 모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안 살림과 어린 자녀의 뒷바라지를 뒤로 미룬 부인이 부업을 하였다. 그 결과, 돈은 얼마큼 벌었지만, 학교에서 돌아오는 어린 자녀를 따뜻하게 맞이할 어머니의 손길이 매달렸기 때문에 자녀들은 골목대장이 되고 어머니가 주신 용돈으로 반화가게와 전자오락실을 출입하는 동안에 학교 성적은 부진하고 문제아가 되어 바로 잡으려고 애를 써도 힘든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는 평생을 통하여 다시 가질 수 있어도,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것은 한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일이다. 돈보따리 잡으려는 것보다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하겠다.

사람은 길모양도 중요하지만 속사람 인격이 진실한 것이 더욱 귀하다. 진실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비록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해도, 교만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는 커녕 남을 깔보고 웃어롱을 무시하고 하나님마저 두려운 줄 모르고 무소불위 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못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자신은 망신을 당하고서도 부끄러워하거나 회개할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바이다.

다음호 칼럼은 김경철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I. 개요

우리 교회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양 찾기 운동을 전개하며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전도를 통한 교회 배가운동을 일으켜 조국을 복음화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한다.

II. 목표

1. 등록 교인 전체가 예배 및 집회 참석
2. 전교인 태신자 갖기(1명 이상)
3. 새신자를 중심으로 교구 중심
4. 기존 구역일꾼(구역장)의 재교육
5. 청장년 집회를 통한 결신자 배출(3,000명)
6. 교회학교 배가 성장

III.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교회 배가운동 기본 계획

교회 배가운동 기본 계획이 지난 4월 1일 당회에서 통과되었다. 교회 배가는 몇몇 교인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들의 기도와 적극 참여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본 지에 기본계획을 게재하여 전 교인이 함께 전개하는 배가운동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IV. 주제찬송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송255장)

V. 실천방안

1. 예배 및 집회 참석
 - (1) 교구별 예배 참석 독려
 - (2) 불참자에게 주보와 주간충현 전달 및 심방-매주
2. 잃은 양 찾기-70교구 중심
3. 개인 전도
 - (1) 태신자 갖기(카드 기록)
 - (2) 전도 메시지, 책자 및 테이프 전달
 - (3) 전도 비디오 제작 및 배포
4. 교구 신설 관리-18교구, 19교구, 20교구 등으로 순차적 신설
5. 구역일꾼(구역장) 주간 교육-매주 수요일부 예배 후(인도: 신성종 목사)
6. 신임 교사 및 충현 전도대원훈련은 교육·양육분과에서 담당

7. 청장년 집회

- 매주 금요일 19:30-22:30
- (1) 1부:청장년 집회(19:30-21:30)
-찬양(인도:김민식 집사), 초청 메시지(담당:신성종 목사)
 - (2) 2부:금요기도회(21:30-22:30)
-말씀·기도(인도:신성종 목사)
8. 총동원-11월 1일(주일)
9. 집중적인 사후 관리

VI. 단계별 진행 일정

- 1단계-준비 및 시작 단계
 - (1) 태신자 작성 및 기록 카드 제출:3월 29일(주일)부터 접수
 - (2) 예배 및 집회 참석:4월 5일부터 교구별 주일 예배 및 집회 참석 확인

- (3) 배가운동 헌신예배:4월 5일 저녁 찬양 예배시(조직 및 신설구역장 임명)
- (4) 잃은 양 찾기:5월 3일-10월 25일
- (5) 개인 전도:3월 29일-10월 25일
- (6) 교구 신설 관리:4월 5일-12월 27일
- (7) 청장년 집회:5월 8일-12월 18일
- (8) 청지기 훈련:4월 2일-5월 8일
- (9) 구역장 교육:4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
- (10) 구역장 대학:구역장 수칙 제정 및 교재 제작 배포
*기존구역장 실무교육(계속교육과)-교구동원분과 담당(연구 검토과제)

- *신설구역장 실무교육(양성과)-4월 22일부터 6주(13:30-14:30)-교육·양육분과담당
- (11) 충현전도대:3월 11일-5월 27일, 11주 훈련 후 신설 교구로 배치
- (12) 새신자 양육:
*기존 새가족부에서 교육:신규 교육 과정 준비
*신설교구:지도교역자가 교육
- (13) 교회학교 배가운동:배가운동 기본계획에 준하여 별도 실시-4월 26일까지 계획 수립
- (14) 국제교구 배가운동:상기와 동일(계획 보고는 기획분과에, 관리는 교구동원분과)
- (15) 기타-본 배가운동의 성공을 위해 교역자, 장로 교육 및 기도회 실시
*일시:4월 20일 저녁-4월 22일 오후
*장사:신성종 목사, 이요한 목사
•2단계-총동원 단계
 - (1) 총동원 기본 계획 수립:6월 22일-6월 24일
 - (2) 총동원 주일:11월 1일
- 3단계-사후 관리 단계

모스크바 국립대학 관계자, 본교회 탐방

모스크바국립대학 관계자들이 한국 교회와 신학 교육에 대한 협력 문제로 지난 3월 27일부터 5박 6일 동안 서울에 체류하면서, 한국 미디어전교회 임원들과 함께 27일 오후 4시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는 이들에게 교회 연혁을 설명하였고, 이들은 교회 내 시설들을 둘러보았다.

김정태 집사 권면키로

본 교회는 지난 4월 1일 소집된 당회에서 김정태 집사(제4교구)를 권면키로 하고, 이를 위하여 이태균 장로, 오태희 장로, 김영계 장로를 권면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김 집사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제4교구 총동원 단합 대회 도중 소란을 일으키고, 기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기자회견을 하는 등 교회의 허락없이 한 일에 대하여 3월 15일(주일) 교구 모임석상에서 사과한 바 있다.

경로대학 학생 모집

살롬정보대학(학장 신성종 목사)는 92년도 제1학기를 오는 4월 16일 개강함에 따라 학생을 모집한다.

60세 이상의 충현의 성도는 물론이러니와 신앙에 관계 없이 등록이 가능하므로 전도 차원에서 믿지 않는 노인들을 권면하여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병학 장로 총신신학원이사회 감사로



우리 교회 이병학 장로(기획위원, 선교위원, 설교양찬양대장)가 총신신학원이사회 감사로 선임되었다.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부정 김재균 장로, 지도 최원근 목사)는 새 봄을 맞이하여 부부의 행복 성장을 위하여 특강을 개최한다.

- 주제:부부의 균형한 신앙 성장
- 일시:4월 5일 오전 11시
- 장사:조동원 목사(교동부 지도)
- 장소:교육관 201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지기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책임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청지기직에 대한 교훈을 많이 하신 것이다. 청지기 중에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뜻을 따라 잘 쓰는 지혜로운 청지기도 있고, 주인이 없는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전설하지 않은 청지기도 있다.

이 재산이나 종들을 대표하여 다스리는 직책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신약적 의미로 다시 조명해보면 전리를 따라 교회를 봉사하는 자인 것이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전 4:1)라고 하면서 "나를 충성되어 여거 내게 직분을 맡기심"(딤후 1:1)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청지기직이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맡겨짐에 성립하는

왜 나를 청지기로 택하셨을까?"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충현교회는 1992년도를 "교회 배가 성장의 해"로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긴급하게 필요한 일을 시작한 것이다. 이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는 예수님의 명령을 목표로 삼고, 충현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상명령을 따라야

특행기고

청지기는 어떤 자리이며 왜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이조웅 목사(청지기훈련원 지도)



저해있는 청지기는 청원과 보상을 받지 못한 전설하지 않은 청지기는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마24:45-51; 눅12:42-48).

청지기란 맡은 수세기 동안 발전해온 권역사를 지내고 있는 단이인테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한다. 신약에는 이 단어가 약 10회 사용되었는데, 그 뜻은 "관리자, 집사, 봉사자"라는 뜻이다. 즉 주인의 소유를 맡아 주관하는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종 엘레에셀의 직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청지기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과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재산 등을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바친다는 의미이다.

것이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무조건 열심만을 가지고 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자리이다(딤후4:10). 봉사는 섬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청지기가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였다 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 선집이나 큰 것처럼 뽐낼 일도 아니고, 대대적 교회 안에 눈부시게 빛날 일도 못된다.

오직 우리는 극도로 충실한 후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될 때 올바른 청지기가 될 것이다. 청지기는 늘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도는 싸움의 영적인 전쟁이다. 전쟁에 임하기에 앞서 군인이 훈련을 필요로 하듯,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도 훈련이 꼭 필요하다. 급변 정세가 훈련을 통하여 고 동안 걸려든 영혼을 깨우고 힘있고 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려까지 바쁜 일 가운데에서도 청지기는 하나님에 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한다. 이제 청지기훈련을 통해 영적 잠재에서 벗어나 편지나 자신에 새신자를 영접하여 받고 절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 제위하겠다는 결심, 계획과 계획을 간절히 바란다.